

### ? 정말 자리를 빌 수 있을까?

“이 자리를 빌어/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어’와 ‘빌려’ 중 어떤 말이 맞는 표현일까? 행사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라며 인사말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텐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리는 비는 것이 아니라 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이나 돈 따위를 대여할 때 ‘빌리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남의 말·글 따위를 취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빌다’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나. 간청하고, 호소하고, 무언가 간절히 바랄 때다. 소원을 빌고, 용서를 빌고, 완쾌를 비는 상황 등에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 기안문도 결제가 가능할까?

“팀장님, 기안문 올렸으니 결제해 주세요.”

직장생활을 해본 독자라면 이런 문장을 심심치 않게 봤을 것이다. 얼핏 잘못된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결제’가 아니라 ‘결재’라 써야 한다는 것을. 단어가 워낙 비슷해 흔히 하는 실수다 보니 이를 지적하기도 조금 머쓱하다.

결재와 결제는 의외로 구분하기 쉬우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익혀두면 좋겠다. ‘결재(決裁)’는 의사결정권자가 안건에 대해 검토, 허가,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안문은 ‘결재’가 아니라 ‘결재’** 해야 한다. 서류나 문서와 관련된 경우 쓸 수 있는 말이다. 반면, ‘결제(決濟)’는 증권이나 대금을 주고받아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끝맺는 일이다. 경제활동이나 돈과 관련된 경우의 표현이라 생각하면 쉽다. ‘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 ‘잔금 결제’ 등으로 쓸 수 있다.

이번에는 ‘개시(開始)’와 ‘게시(揭示)’에 대해 알아보자.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게시해 보자.”, “이 시안으로 현수막을 개시/게시해 보자.”

정답을 찾았는가? **‘활동을 ‘개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면 된다. 개시(開始)는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하는 것이고, 게시(揭示)는 알리기 위해 내걸어 두루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시판’이 아니라 ‘게시판’이라 쓰는 것이다.

하나 더 살펴보자. ‘중개(仲介)’와 ‘중계(中繼)’.

‘부동산 중개/중계 수수료’, ‘스포츠 중개/중계 방송’

이 경우 **‘중개 수수료’, ‘중계 방송’이 맞는 표현**이다. 중개(仲介)는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고, ‘중계(中繼)’는 중간에서 이어주는 행위나, 방송국 밖의 실황을 중간에서 연결하여 방송하는 일을 말한다.

### ? 아무리 작명이라지만...누네띠네 설레임 바램?

‘누네띠네’, ‘설레임’이라는 상품명, ‘바램’이라는 노래 제목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누네띠네는 **‘(눈에 띄네)’**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인데, 이 상품이 인기를 얻다 보니 올바른 표현이 ‘눈에 띠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띄다’는 ‘눈에 보이다’의 뜻을 나타내는 ‘뜨이다’의 준말로, 주로 ‘눈’과 함께 쓰인다. ‘띠다’는 빛깔이나 색채, 감정이나 기운, 어떤 성질 등을 가지거나 나타낸다는 뜻으로, ‘푸른빛을 띠다’, ‘미소를 띠 얼굴’, ‘개방적 성향을 띠다’처럼 쓰인다.

‘설레이다’는 ‘설레다’의 잘못된 표기다. 따라서 준말 역시 **‘설레임’이 아닌 ‘설렘’**이라 해야 맞는 것이다.

‘바라다’는 소망이 이뤄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행위(wish, hope)로, 어간 ‘바라-’에 접미사 ‘-ㅁ’을 붙여 명사로 만든 것이 ‘바람’이다. 반면,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한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색바래이다. 그러니 우리가 익히 아는 노사연이나 토이의 **‘노래 제목 ‘바램’은 사실 ‘바람’이 맞는 것**이다.

“나의 바람은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

입에 착 붙진 않겠지만, 이제 올바른 표현을 알았으니 실생활에서 자주 써보길 바란다.

### ? 표준어를 쓰던지 말던지?

‘-던(지), -든(지)’. 이 표현도 많이들 헷갈려 한다. 국립국어원 상담실 맞춤법 관련 질문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라고 한다.

“표준어를 쓰던지 말던지,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이 문장에서 올바른 표현은 **‘(쓰)든지 (말)든지’**다. ‘-든지’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 차이가 없거나 상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쓴다.

“얼마나 춥든지 손이 꽁꽁 얼었다.”

이 경우에는 **‘(춥)던지’**로 써야 맞다. ‘-던지’는 지난 사실이나 과거의 상태를 회상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쉽다.

66

이처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도 정확히 모르거나 헷갈리는 단어들도 아주 많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말의 표현방식이 그만큼 다채롭고 심도 깊다는 의미기도 하다.

아름답고 심오한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고 정확한 한국어 구사를 생활화하는 것은 어떨까.

99

